

무주 대차리 고분군 시굴조사



2018. 06



무 주 군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목 차

I . 조사개요	1
II . 자연환경 및 고고·역사적 배경	3
1. 자연 · 지리적 환경	3
2. 고고 · 역사적 배경	4
3. 지명유래 및 주변유적 현황	8
III . 조사내용	17
IV . 조사성과 및 조사단 의견	26

I. 조사개요

■ 조 사 명 : 무주 대차리 고분군 시굴조사

■ 허가번호 : 제2018-0529호

■ 조사지역 :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대차리 산46번지 일원

■ 유적의 현황

- 2006~2007년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에서 『문화유적분포지도 -무주군-』 발간을 위해 실시한 지표조사에서 유적의 존재가 처음 파악되었다.
- 무주의 북쪽에 위치한 향로봉(해발 420m)에서 서남쪽으로 뻗은 산줄기 정상부와 말단부에 고분군이 위치한다. 유적에서 남쪽으로 650m 가량 떨어진 지점에는 남대천(南大川)이 흐르며, 천변에는 충적대지가 형성되어 사람이 거주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 이곳은 무주군 무주읍 대차리 차산마을 동쪽에 위치한 산줄기로 말단부는 대부분 경작지로 조성되어 원지형이 크게 변형되었으나 정상부는 잔존상태가 양호하다.
- 마을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과거 산줄기 말단부를 경작지로 개간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석재와 함께 대부장경호, 고배, 삼국시대 토기편 등이 수습되었으며, 도굴꾼이 고분군에 자주 드나들었다고 한다.
- 원지형이 잘 남아있는 산줄기 정상부와 사면부에서는 고분의 벽석으로 추정되는 천석(川石)과 도굴갱 등이 확인되며, 고배, 구연편, 동체편 등 삼국시대 유물이 상당량 수습된다.
- 지표에서 고분군의 흔적이 확인되는 산줄기 정상부와 사면부를 중심으로 시굴조사가 이루어지면 관련 유구가 드러날 것으로 기대된다.

■ 조사목적

- 금번조사는 무주 대차리 고분군에 대해 시굴조사를 실시하여 유적의 개략적인 분포범위와 잔존상태, 성격 등을 파악하고자한다.
- 시굴조사에서 파악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향후에 진행될 정밀발굴조사

대상범위의 설정, 조사방법 등을 제시하고자 하며, 나아가 보존·활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조사경과

조사연도	조사명	조사기관	주요성과
2006~2007년	『문화유적분포지도-무주군-』 발간을 위한 지표조사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유적의 존재 및 대략적인 범위 확인

■ 조사면적 : 5,000㎡

■ 조사기간 : 2018년 05월 02일~2018년 05월 28일(실 조사일수 5일)

■ 조사기관 :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 조사단 구성

▷ 단 장 : 곽장근(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장, 역사철학부 교수)
(책임조사원 겸임)

▷ 조 사 원 : 조명일(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 준 조 사 원 : 유영춘(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선임연구원)
김은희(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학예연구원)

▷ 보 조 원 : 이한나(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학예연구원)
유수빈(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보조연구원)

※ ()안은 발굴조사 허가당시의 직명임

II. 자연환경 및 고고·역사적 배경

1. 자연·지리적 환경

전라북도 북동부 백두대간 서쪽 사면에 자리하고 있는 무주군은 그 면적이 631.68km²이며 지리적 좌표는 동경 127° 55' ~ 127° 31', 북위 36° 4' ~ 36° 47' 에 위치한다. 무주군은 우리나라 내륙지방 중에 가장 중심부를 점유한 산악지대로서 무주읍과 설천면은 충청북도 영동군과 충청남도 금산군, 부남면은 충청남도 금산군, 무풍면은 경상북도 김천시와 경상남도 거창시, 안성면은 경상남도 거창시, 적상면은 안성면과 무주읍에 접해 있다.

최근에는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개통되어 무주를 관통함으로서 서울, 부산 등 전국 어디서나 2시간대에 도달할 수 있는 접근성을 갖추게 되어 명실상부한 내륙교통의 중심지로서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또한 무주구천동 · 덕유산국립공원 등 자연관광자원이 풍부한 곳으로 무주읍 · 무풍면 · 설천면 · 적상면 · 안성면 · 부남면과 구천 · 상곡 · 가정 출장소 등 1개 읍, 5개 면, 3개 출장소, 48개 동리가 있다.

무주군은 백두대간의 서쪽 사면, 금강의 최상류에 위치한다. 군 전체가 산악지대에 속하며 산지 사이에 계곡이 발달하였고, 그 주변에 고원 형태의 분지와 협소한 평야가 있다. 무주지역의 산천으로는 민주지산(1,242m) · 적상산(1,038m) · 거칠봉(1,178m) · 백운산(1,010m) · 지봉(1,248m) · 덕유산(1,614m) · 두문산(1,051m) · 대덕산(1,290m) 등 1000m 이상의 높은 봉우리들이 곳곳에 솟아 있다. 민주지산은 설천면과 충북 영동군과 경계를 이루고 대덕산은 무풍면과 경북 김천시, 안성면 및 설천면과 경남 거창군과의 경계는 두문산 · 덕유산이 경계를 이루고 있다.

임야는 무주군의 총면적 642,09km² 중 533,36km²을 점유하여 전체의 84%를 차지하고 있다. 백두대간은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동쪽 해안선을 끼고 남으로 맥을 뻗어 내리다가 추풍령에서 손가락을 구부린 것처럼 구부러져서 무주군과 충청도 · 경상도와 경계를 형성하여 남서쪽의 지리산에 이른다. 이 산맥은 환상(環狀)을 이루는데 여러 개의 줄기로 갈라져서 무주군의 동남부의 경계를 이루었다.

하천은 남대천 · 구랑천 등이 있는데, 남대천은 설천면의 무주구천동에서 발원하며 구랑천은 안성면 덕유산 산록에서 발원하여 모두 금강으로 흘러든다. 각 하천의 주변은 작은 분지와 하천, 평야를 이루는데 무풍과 안성은 분지로볼 수 있으나 기타 하천은 평야라고 할 만한 곳이 없다. 각 하천은 급경사가 된 산, 계곡을 흘러

대부분 급류에 사행천을 이루고 있어서 조운에는 도움이되지 못한다. 남대천은 대동여지도에서 적천이라 하였고, 향적봉기(香積峯記)¹⁾에는 녹천(鹿川)이라 불린다. 이 남대천은 동서로 거의 직선을 이루고 있다. 무풍에서 무주읍 소재지를 지나 대차리로 흐르는 남대천과 안성에서 흐르는 구량천이 합류하여 내도리를 휘돌아 섬을 이루고 금강으로 합류하는데 내도리에서 사행천의 대표적인 특성을 볼 수 있다.

무주군의 지질은 화강석지질이다. 하천이 급류이면서 사행이므로 도처에 천하의 절경을 이루고 있다. 이것은 화강석 지질이 오랜 풍화작용으로 침식되어 기암괴석이 생기고 절경을 이루는 원인이 된다. 이들 계류의 주변에 해발고도 200~400m의 좁은 평지가 있을 뿐 대부분 산지이다. 지질환경은 안성면과 설천면 심곡리에서는 화강암질 편마암이 심층풍화되어 고원형태의 분지가 발달하였는데, 심곡리는 해발고도 800~1,000m, 안성면 장기리는 해발고도 400~550m에 나타난다. 특히 안성면의 경우에는 심층풍화된 상부에 적황색토가 덮여있고 여기에 구리향천(九里香川)이 개석(開析)한 후 현재 하천 주변에 충적단구가 있어 3단의 단구상(段丘狀) 지형이 발달하여 한국 내륙분지의 형성과정을 모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기후는 연평균 기온이 12° C내외, 연평균 강수량 1,300mm로 비가 많고 겨울에는 남내륙형 기후구에 속하나 지대가 높아서 고랭지 기후지역이 많다.

2. 고고·역사적 배경

1) 고고학적 배경

무주군에서 현재까지 밝혀진 선사시대와 역사시대의 중요 유적에 대해서 시대 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무주지역의 구석기시대 유적은 아직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지만 무주읍과 설천면, 부남면 등에서 구석기로 추정되는 석기들이 수습된 바 있어 구석기시대 유적의 존재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다.

신석기시대의 유적이나 유물로는 2003년 태풍 루사가 지나간 후, 소천리 일대의 원당천을 보수 공사하면서 즐문토기편이 수습된 예가 있다. 이는 무주지역에 신석기시대부터 인문활동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무주군과 인접된 진안군, 장수군에서는 구석기시대와 신석기시대의 유적이 조사된 바 있기 때문에 무주군에서도 앞으로 이 시기의 유적이 발견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²⁾.

청동기시대 유적으로는 적상면 사천리 신대마을, 공진리 주고리마을, 금평리에서 10여기의 지석묘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³⁾, 부남면 가당리와 설천면 청량리

1) 조선 중기 문인 갈천 임훈(葛川 林薰 1500~1584)이 1552년 덕유산 향적봉에 오른 뒤 남긴 기행문.

2)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研究所, 2007, 『文化遺蹟分布地圖 -茂朱郡-』.

에서도 약 7여기의 지석묘가 확인된 바 있다⁴⁾. 또한 적상면 사천리 길왕에서 무문토기, 안성면·적상면·부남면에서 마제석검이 수습된 바 있다.

역사시대의 유적은 발굴조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서는 몇 건의 발굴조사와 지표조사에서 밝혀진 고고학적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볼 수밖에 없다. 무주 무풍면 현내리에서는 백제와 신라토기가 동일고분에서 함께 수습되었다⁵⁾. 무주군에서도 전형적인 산악지대인 무풍면 현내리는 고재와 주치(走峙)로 연결되는 교통로가 나뉘는 분기점으로 교통상 요충지를 이룬다. 무풍면 현내리 북리마을 북쪽에 유적이 위치하며, 이곳은 백두대간의 준령에 위치한 민주지산에서 남쪽으로 길게 뻗어 내린 경사면의 말단부에 해당된다. 북리마을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곳에서는 70년대 초에 밭을 개간하다가 우연히 몇 기의 고분이 발견되었는데 이들 고분은 둘로 쌓은 방과 방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달린 것과 통로가 없는 것 등 두 가지의 구조를 하고 있었다.” 고 한다. 당시 이곳에서 12점의 토기류가 수습되었는데 유물은 무풍초등학교에 소장되어 있다. 이 유물은 신라시대의 고배와 대부장경호로 보고되었다. 이 밖에도 설천면 소천리 이남마을, 안성면 공진리 주고리마을 등지에 고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⁶⁾.

통일신라시대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대차리 고분군⁷⁾이 있다. 이 유적에서는 대부장경호, 투창고배, 개배 등의 고분유물들이 수습되었다.

적상산성은 대표적인 관방유적으로 적상면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창리, 포내리, 괴목리, 사천리 등 4개리에 걸쳐 있는 적상산 분지의 절벽을 이용해서 쌓은 석성이다. 산성의 정확한 축조연대는 알 수 없으나, 문헌에 따르면 최소한 고려 중엽 거란의 제 2차 침입(1010) 이전에 축성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광해군 때 실록(實錄)과 선원록(璿源錄)의 보다 안전한 보관을 위해 적지(適地)로 적상산성이 거론되었고, 광해군 6년(1614) 적상산성 안에 실록각이 창건되었다. 광해군 10년(1618)에는 새로 편찬된 선조실록이 처음으로 봉안되었다. 그밖에 주계 고성지, 무풍산 고성지, 무풍 지성리 성현, 노고성지 등이 알려져 있으며 부분적으로 지표조사가 이루어진 것도 있다⁸⁾.

역사시대 유적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불교유적과 도요지이다. 무주군의 거찰 가운데 하나인 백련사는 신라 흥덕왕 5년(830) 무염국사가 창건했다고 전하나 그 전모를 파악할 길이 없으며, 이러한 사정은 고려 충렬왕 3년(1277)에 월인(月印)스님이 창건했다고 전해지는 적상산 안국사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무주는 조선시대에 백

3) 전북대학교박물관, 2006, 『무주 관광레저 기업도시 개발사업 부지 내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

4) 주 2) 게재.

5) 全北大學校博物館, 1988, 『茂朱地方文化財地表調査報告書』.

6) 전북문화재연구원, 2003, 『전북지역의 백제문화유산』.

7) 주 2) 게재.

8) 주 2) 게재.

련사를 중심으로 정관당 일선, 매월당 설흠 등의 이름난 고승들이 활약했던 지역인 만큼 앞으로 새로운 유적의 발견이 기대되는 지역이기도 하다. 현재 남아있는 이 지역의 불적으로는 정관당부도(靜觀堂浮屠)와 매월당부도(梅月堂浮屠)를 비롯하여 백련사 뒷산에 있는 백련사 방등계단 등이 대표적이다⁹⁾. 이외에도 적상산 내에는 안국사 · 호국사 등의 사찰과 조선왕조실록이 봉안되었던 무주 적상산사고¹⁰⁾가 잘 알려져 있으며, 안국사 영산회괘불탱은 보물1267호로 지정되어 있다.

현재까지 조사된 도요지는 부남면 대소리 도소(大所里 島所 : 운영시기 18~19세기)마을과 부남면 대유리 유동(大柳里 柳洞 : 운영시기 17~18세기)¹¹⁾마을, 적상면 사천리(운영시기 15~16세기) 등이 있다¹²⁾. 발굴조사 된 사천리 백자요지는 사천리 서창마을 무주 서창향토사박물관의 남쪽에 위치하며, A구역에서 소형가마 1기, 원형과 타원형의 소토유구 3기, 지석묘 하부로 추정되는 유구 1기가 조사되었다. B구역에서는 백자가마 1기, 폐기물, 무문백자 접시, 완, 발, 대접, 잔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특수기종으로는 화분, 소호, 병, 제기, 대발, 갓모 등이 소량 출토되었다.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무주는 충청도와 경상도, 전라도를 잇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입지적으로 중요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선사부터 역사시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적들이 분포하고 있는 유서 깊은 지역이다. 아직 많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자료는 많지 않지만 앞으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많은 유적과 유물이 발견될 가능성이 큰 지역이다.

2) 역사적 배경

무주는 예로부터 서로 다른 부족국가 또는 다른 행정구역에 속해 있다가 병합하여 하나의 지역이 된 곳이다. 원삼국시대에 백두대간을 사이에 두고 동쪽인 무풍은 변진, 서쪽의 주계는 마한에 속해 있었다. 변진의 무풍은 본래 신라의 무산현인데 경덕왕 16년 지명 및 행정구역 개편 때 무풍이라 고쳐 상주 개령군의 영현이 되었다. 고려에 들어와서는 전주 진례현에 속했다가 명종 2년(1172) 처음으로 감무(監務)를 두었다. 마한의 주계는 본래 백제의 적천현인데 통일신라 경덕왕 16년 지명 및 행정구역 개편 때 단천(丹川)이라 고쳐 진례군의 영현이 되었다.

고려에 들어와서 주계라 고쳐 그대로 이어오다가 명종 6년(1176)에 이웃 무풍 감무로 겸임시켰고, 공양왕 3년(1391)에 주계가 무풍을 병합하였다. 조선조에 들어서 태종 14년(1414)에 전국을 8도제로 바꾸는 행정구역 개편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 주계와 무풍이 통합하여 두 고을의 앞자를 따서 무주현으로 개칭하고 치소는 주계현

9) 國立全州博物館, 2002, 『全羅北道の佛教遺蹟』.

10) 金三龍·金善基·金鍾文, 1989, 『茂朱赤裳潭 水沒地區 發掘調査報告書』, 圓光大學校 馬韓百濟研究所·韓國電力公社.

11) 國立全州博物館, 1997, 『全北의朝鮮時代陶窯址』.

12) 김종문 · 한정화, 2007, 『茂朱 斜川理 白磁窯址』, 전북문화재연구원.

의 치소로 하였다. 광해군 6년(1614) 적상산성에 사고를 설치하였고, 인조 11년(1633) 묘향산에 있던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하게 된 것을 계기로 해서 현종 15년(1674) 금산군의 안성과 횡천을 편입시켜 6년 도호부로 승격되었으며 수성장(守城將)을 겸했다. 숙종 29년(1703)에는 토포사를 겸했다. 고종 32년(1895)에 지방관제 개편에 따라 군(郡)이 되었고 금산군으로부터 부남면을 편입시켰으며, 1914년 군면 폐합 때 6면의 체제를 갖추었다. 1963년 적상면에 상곡출장소와 설천면에 구천출장소가 설치되었고, 1975년 부남면에 가정출장소가 설치되었으며, 1979년 무주면이 읍으로 승격되었다. 주계 및 병합무주의 치소는 무주읍 읍내리였고 무풍의 치소는 무풍면 현내리였다. 현재 무주읍과 무풍 · 설천 · 적상 · 안성 · 부남면 등 1읍 5면으로 이루어져 있다¹³⁾.

무주군은 일찍부터 교통의 요충지를 이루었다. 백두대간을 넘는 고개와 금강을 건너는 나루를 중심으로 교통로가 그물망처럼 잘 구비되어 있다. 고개는 금강과 황강 수계권을 연결해주는 고재와 동엽이재(冬葉嶺), 무주군과 장수군을 이어주는 오두치 · 도치 · 노루고개 · 마분치 · 충남 금산군에서 무주군으로 넘어오는 관문인 지삼치와 목사리치가 대표적이다. 나루는 무주읍과 무풍면, 설천면 방면 사람들이 주로 이용한 무주읍 용포리 노루고개와 목사리치를 직접 연결해 주었던 부남면 대소리가 대표적이다. 이들 고개와 나루는 일찍부터 무주군에 지역적인 기반을 둔 토착세력 집단이 발전하는데 큰 원동력을 제공해 준 것으로 보여진다. 무주읍은 원삼국시대에는 마한에 속해 있었는데 나중에 백제의 적천현으로 되었다가 통일신라 경덕왕 때 단천(丹川)으로, 이름을 바꾸고 중전에 이성현으로 불렸던 진례현에 예속되었다.

고려 때에는 주계현으로 개명되었는데, 현의 중심지였다. 조선시대에는 태종 14년(1414) 무풍현과 통합되어 무주현이 되었으며 치소가 주계성에 설치되어 무주현의 중심지가 되었다. 그 당시 무주현의 행정구역은 부내면 · 북면 · 서면 · 신평면 · 풍서면 · 풍남면 · 풍동면 · 상곡면 · 유가면 등 9개 면이었다.

그 중 무주읍에 해당하는 지역은 부내면(현재의 읍내리 · 오산리 · 대차리의 다산), 북면(앞섬을 제외한 내도리 일대), 서면(다산을 제외한 대차리 · 용포리 · 가옥리), 신평면(장백리) 등이었다. 현종 15년(1674) 적상산성 사고와 관련하여 무주현이 무주도호부로 승격된 후에도, 무주읍은 본군의 전역을 관할하는 관아가 설치된 지방행정의 중심지였다.

현재 무주읍의 행정구역은 8개 법정리, 행정상 30개 리, 152개 반(班), 34개 자연마을로 구획되어 있다.

적상면은 무주읍과 마찬가지로 원삼국시대에는 마한에 속했으며, 백제의 적천현,

13) 柳在泳, 1993, 『全北傳來地名總攬』, 民音社.

통일신라의 단천현, 고려의 주계현에 속하였고, 조선 태종 이후에 주계현이 무주현으로 개칭됨에 따라 무주현에 속하게 되었다. 그 당시에는 유가면(柳加面, 현재의 사천리와 사산리[마산 제외], 삼유리와 방아리, 안성면 진도리)과 상곡면(裳谷面, 현재의 북창리, 괴목리, 사산리의 마산마을과 안성면의 사전리)으로 나뉘어 있었다.

1914년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유가면과 상곡면이 통폐합되어 적상면이라는 이름을 새로 갖게 되었으며 용담거리(龍潭街)에 면사무소가 설치되었다. 이 때 유가면에 딸렸던 진도리와 상곡면에 속했던 사전리는 안성면으로 편입되었다.

그 후 별다른 변화가 없었는데, 1963년 면출장소설치조례(面出張所設置條例)가 공포되어 포내리에 적상출장소가 설치되어 종전의 상곡면 지역을 관할하다가 1998년 11월 6일 폐지되었다.

현재 적상면의 행정구역은 8개 법정리, 행정상 25개 리, 75 반(班), 54개 자연마을로 구획되어 있다.

3. 지명유래 및 주변유적 현황

1) 지명유래

① 대차리(大車里)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에 속하는 법정리로 본래 부내면 지역이었는데 1914년 행정 구역 개편 때 서면의 소재지였던 대촌(大村) 마을과 부내면에 속하였던 차산(車山) 마을을 통합하면서 대촌의 ‘대(大)’자와 차산의 ‘차(車)’자를 따서 대차리(大車里)라고 하였다.

② 향로봉(香爐峰)

무주읍 내도리에 위치한 산으로 동쪽으로 남대천이 위치하고 남쪽으로 무주읍이 있으며, 북쪽으로는 충북 영동군과 경계를 이루는 칠봉산이 있다. 산 기록에는 북고사가 자리하며,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노산은 현의 북쪽 1리에 있는 진산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여지도서』에는 “삼도봉에서 주맥이 이어지고 있으며, 부의 북쪽 3리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③ 남대천(南大川)

무풍면 · 설천면 · 무주읍 일대를 지나는 하천으로 덕유산 동쪽 사면, 대덕산, 삼봉산 등지에서 발원하고 무주읍 대차리 서면나루에서 금강과 만난다. 발원지로부터 무주읍 장백리 이전까지의 상류는 지방 2급 하천이고 나머지 하류는 지방 1급 하천으로 구분 관리된다. 설천면 면 소재지 부근에 가면 나제통문도 가까이에 있다. 지

금의 남대천은 『신증동국여지승람』 등 문헌기록에 ‘적천’으로 기록되었으나 무주군 인근은 강의 폭이 넓어 사람들에게 대천(大川)으로 인식되어 따로 ‘남천’으로 적혀있다.

2) 주변 유적

① 무주 읍내리 북고사 (茂朱 邑內里 北固寺)

○ 소재지 :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520

○ 시대 : 고려

○ 개요 :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금산사의 말사이다. 언제 창건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무학대사 자초가 경월사(慶月寺)라는 본래 이름을 북고사로 바꿨다는 구전이 전해져 늦어도 고려 말에 창건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392년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자 자초(自超)가 새 도읍을 찾아 여러 지방을 다니다가 북고사가 있는 곳에 이르러 '무주의 지세가 복지(卜地)이나 북쪽 능선이 약하다'라고 하며 고을 현감에게 절에 탑을 세우고 절 이름을 북고사로 바꾸면 장차 큰 고을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후의 연혁은 알려진바 없으며 1978년 주지 관주(觀柱)가 극락전을 복원하여 오늘에 이른다. 현존하는 건물로는 극락전과 칠성각, 산왕각, 요사채 등이 있고 유물로는 삼층 석탑과 불상 1점, 탕화 2점이 전한다. 삼층석탑은 고려시대의 전형적인 석탑양식을 따른 것으로 창건연대를 추정하는데 결정적인 자료가 된다. 단 자초의 일화에 나오는 탑인지는 알 수 없다. 극락전 안에 있는 아미타여래좌상과 신중 탕화가 있다.

② 무주 읍내리 칠암소 (茂朱 邑內里 漆岩沼)

○ 소재지 :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1373

○ 시대 : 미상

○ 개요 : 칠암소는 내도교의 서쪽에 위치한다. 이 바위는 금강과 맞닿아 있으며 절벽의 형태로 되어 있다. 높이는 약 20m정도이다. 칠암소에는 조선시대 함창 현감이었던 도원 박인정이 사육신이 불행을 당하자, 벼슬을 버리고 주계 서호로 들어와 세상을 등지며 살면서 이곳에 '도원상죽 적벽강산(桃源桑竹 赤壁江山)'이란 여덟 글자를 새겼다고 한다.

③ 무주 읍내리 유물산포지1 (茂朱 邑內里 遺物散布地1)

○ 소재지 :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605 일대

○ 시대 : 삼국시대

○ 개 요 : 유물산포지는 읍내에서 북고사 방향으로 올라가는 수리제 아래 마을 동쪽에 위치하며 서쪽으로는 방죽이 위치한다. 낮은 야산에서 남쪽으로 뺏어내린 산사면과 말단부는 현재 고추밭, 콩밭, 깨밭, 논으로 개간되어 이용되고 있다. 유물은 연질토기편, 경질토기편 등이 수습되었다.

④ 무주 읍내리 유물산포지2 (茂朱 邑內里 遺物散布地2)

○ 소 재 지 :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685 일대

○ 시 대 : 삼국~고려

○ 개 요 : 유물산포지는 무주초등학교 뒤편에 위치한 구릉의 북사면에 위치한다. 북쪽으로는 뒷방죽이 위치한다. 지형은 대체로 개간이 심하게 이루어졌으며 현재 고추밭, 들깨밭, 콩밭, 논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수습된 유물은 연질토기편, 경질토기편 등이다.

⑤ 무주 읍내리 향산사 나한전 나한상 (茂朱 邑內里 香山寺 羅漢殿 羅漢像)

○ 소 재 지 :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721-1 일원

○ 시 대 : 고려

○ 개 요 : 최근에 건립된 나한전에는 1912년에 중창된 안국사 명왕전에 봉안되어 있다가 1950년 6.25때 난을 피하여 이곳으로 옮겨온 후 현재까지 모시고 있다고 전해지는 석조석가모니불, 나한상, 신중상, 동자상 등 총 26구의 존상들이 'ㄷ'자형 불단 위에 모셔져 있다. 본존인 석가모니불은 높은 육계에 근엄한 얼굴표정을 짓고 있으며 통견의 대의를 걸쳤다. 대의의 주름은 간략한 몇 가닥의 음각선으로 처리하였으며 수인은 항마촉지인이다. 협시보살상은 머리에 보관을 쓰고 선정인을 취하였고 전반적인 모습은 석가모니와 거의 흡사하다. 신중들은 의좌(倚坐)하고 있다. 동자들은 손에 꽃가지를 받쳐들고 약간 측면향을 하였다. 한편 이곳에 모셔진 나한상들은 모두 30~40cm 내외의 크기로 조성되었는데, 신체에는 청색, 적색, 양록색, 주황색이 두텁게 칠해져 있다.

⑥ 무주 대차리 유물산포지4 (茂朱 大車里 遺物散布地4)

○ 소 재 지 :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대차리 996 일대

○ 시 대 : 삼국~조선

○ 개 요 : 유물산포지는 서면 마을 일대로 대부분 논과 밭으로 개간되어 이용되고 있다. 서쪽으로는 금강이 흐르며 대부분 사과나무 과수원과 인삼밭, 고추밭으로 이용되고 있다. 북쪽으로는 야산이 위치하며, 야산의 말단부에 형성된 밭에서 유

물이 수습되었다. 수습된 유물은 경질토기편과 자기편 등이다.

⑦ 무주 읍내리 무주부 관아지 (茂朱 邑內里 茂朱府 官衙址)

○ 소재지 :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229-2

○ 시대 : 조선

○ 개요 : 무주부 관아터는 현재 무주군청이 위치한 곳으로 추정된다. 무주부는 지금의 전북 무주군 중에서 부남면을 제외한 지역에 해당한다. 무주 관아터의 모습은 19세기에 그려진 조선후기 지방지도 무주부(朝鮮後期 地方地圖 茂朱府)편에 그 모습이 자세하게 그려져 있다. 무주는 조선 1414년(태종 14)에 무풍현(茂豐縣)과 주계현(朱溪縣)을 합하여 만든 고을로 경상도와 전라도의 접경에 위치해 있다. 읍치는 산지가 있는 동쪽을 피해 북서쪽에 치우쳐 있다. 읍치 내부에는 여러 관아 건물과 아울러 다른 지도에서는 보기 힘든 종각(鐘閣)의 모습도 그려져 있다. 읍치 전면에는 여러 누정도 그려져 있는데 그 가운데 현재 당산리 지남공원내에 복원된 한풍루(寒風樓)는 이 고을에서 가장 유명한 누각이었다. 한풍루는 전주 한벽루, 남원 광한루 등과 함께 호남의 아름다운 누각으로 손꼽혔다. 또한 현 군청자리로 추정되는 부분에 관아의 중심부인 동헌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주변으로 객사를 비롯한 부속건물들이 상당수 남아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⑧ 무주 대차리 돈세정지 (茂朱 大車里 遯世亭址)

○ 소재지 :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대차리 896 일원

○ 시대 : 조선

○ 개요 : 단종 때 함창(咸昌) 현감이던 박인정(朴仁挺)은 사육신(死六臣)이 불행을 당하자, 벼슬을 버리고 주계(朱溪)의 서호(西湖)로 들어와 스스로 호를 도원(桃源)이라 하고, 세상을 등지고 살면서 다시 벼슬을 나가지 않았다. 그 후 참의 유연(參議 柳連)이 들어와 박인정이 지었던 옛 정자 터에 돈세정을 짓고 자호를 둔옹(遯翁)이라 하였다. 그리고 박인정의 후손 삼암 박이겸, 비암 박이항 등과 더불어 강론하며 시를 짓고 읊었다. 정자는 무너져 터만 남아 있으나 돈세정에서 읊던 시가 4수 내려오고 있다.

⑨ 무주 읍내리 주계고성지 (茂朱 邑內里 朱溪古城址)

○ 소재지 :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산49-5 일대

○ 시대 : 삼국

○ 개요 : 주계 고성지는 백제 적천현의 읍성으로 지금의 무주읍 읍내리와 대차리의 경계지인 속칭 성안이라고 부르는 곳에 자리잡고 있다. 이 성에 대하여 동

국여지승람이나 문헌비고 등에는 기재되지 않았으나 무주향교에서 간행한 적성지지 편에 기록이 있다. 주계성은 삼국시대 백제의 동쪽 변방에 위치하여 신라의 무산성과 대치되어 국경을 이루고 있던 보루로 현재 무주읍의 진산인 향로산에서 서남으로 흘러내린 능선을 따라 내려가면 동헌터로 보이는 축대와 둘레 약 1km 정도 되는 성곽이 보존되어 있다. 동문지로 보이는 동·북쪽은 토석으로 혼축하여 축조되었고 그 외에는 모두 석성으로 축조되었다. 남·북쪽은 급경사를 이루고 있고 남쪽은 약 50m의 단애면으로 그 밑으로는 무주 읍내를 관류하고 내려온 남대천이 흐르고 있다. 비록 폐성이 되었으나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인위적인 훼손 없이 잘 보존되어 있었는데 일제강점기 때 무주에서 금산간 신작로를 개설하면서 동·서의 양문이 헐리어 그 흔적을 잃고 말았다. 그 후 고성지는 청주한씨 종중 소유가 되었다. 당시 이곳에 살고 있던 한기문 옹에 의하면 주변의 밭을 갈다가 토기, 칼 등의 유물이 발견되기도 했었으나 보존된 것은 없으며 다만 동헌터라고 전해오는 곳에 축대와 샘터가 있었고 그 주변에 기와편이 즐비하다고 전한다.

⑩ 무주 가옥리 절부 전주원씨 정려 (茂朱 佳玉里 節婦 全州元氏 旌閭)

○ 소재지 :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가옥리 496-1

○ 시대 : 조선시대

○ 개요 : 평촌마을 북측의 가옥장로교회 옆에 위치한다. 효자 박이항의 처로 성품이 정결하고 사리가 분명하였다. 선조30년(1597) 정유재란(丁酉再亂) 때, 남편이 가족들을 데리고 장수 백운산으로 피신하면서 “만약 우리가 한곳에 가서 있다면 변을 당하면 한꺼번에 변을 당할 우려가 있으니, 각기 다른 곳으로 피하자”고 하므로, 각기 자녀들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피난하였다. 그 때 왜병이 부인이 숨어있는 백운촌(白雲村) 계곡에 들이닥쳐 부인을 끌고 가려 하였다. 그러나 부인은 당황하지 않고 대나무를 꺾어들고 왜적을 때리며 크게 꾸짖었는데, 그 때 왜적이 모녀를 살해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살아 돌아온 계집종이 전하여 알게 되었다. 1598년 조정에서 이 사실을 알고 “절부 비암처사박이항지처 전주원씨지려(節婦 秘巖處士朴以恒之妻 全州元氏之閭)”로 명정(銘旌)되었다.

⑪ 무주 대차리 유물산포지2 (茂朱 大車里 遺物散布地2)

○ 소재지 :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대차리 1668-6 일대

○ 시대 : 삼국~조선

○ 개요 : 유물산포지는 서면마을 앞 남대천 건너 다라 뜰에 위치한다. 현재 논과 인삼밭 그리고 콩밭으로 개간되어 있으며, 유물이 수습된 지역은 인삼밭 주변의 콩밭과 경작지 일대이다. 이 지역은 이미 경지 정리가 끝난 상태로 상당부분 삭평

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수습된 유물은 원삼국시대 연질토기편과 회청색경질 토기편, 자기편 등이다.

⑫ 무주 대차리 유물산포지1 (茂朱 大車里 遺物散布地1)

○ 소재지 :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대차리 산 73-5 일대

○ 시대 : 삼국~고려

○ 개요 : 유물산포지는 서면 마을에서 남대천 건너에 있는 야트막한 산사면에 위치한다. 현재 정상부에서 하단부까지 민묘 10여기가 분포하고 있다. 과거 지형은 계단식 논으로 형성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고추밭과 인삼밭을 만들기 위해 갈아엎은 상태이다. 능선의 하단부는 삭평이 상당히 진행되어 있는 상황이다. 유물은 회청색경질토기편, 회청색경질타날문토기편등이 수습되었다.